

# 좌석수 아직도 부족...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 서둘러야



## ④ 넘어야 할 과제

호남고속철이 개통된지 6개월 만에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정착돼 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도 감지되는 등 상당 부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연계 교통편 부족과 역세권 개발 미비, 요금 조정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호남 KTX의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시키려면 역세권 개발과 지역 교통수단 연계, 관광·의료 인프라 구축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요금 안정 인화 및 증편 등 필요=서울 용산~광주 송정(303.8km) 구간 운임은 4만6800원으로, 거리와 소요시간이 비슷한 서울~동대구(293.1km) 4만2500원 보다 10% 가량 비싸다. 이 때문에 지역 정치권에서는 임시방편으로 할인율을 조정할 것이 아니라 운임을 인하하고 요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 초기에는 정부의 수요 예측 부족에 따른 좌석 부족으로도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정치권이 나서 목소리를 높인 결과 지난 8월부터 운행횟수 및 공급좌석이 확대됐다. 주중 44회에서 48회로 주 4회 증편됐고, 공급 좌석도 'KTX산천'(363석~410석)을 차량 및 좌석 수가 많은 'KTX'(931석)로 대폭 교체했다. 특히 저속철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용산~송정' 최단시간 93분 열차 운행도 일 1회에서 3회로 확대됐다. 하지만, 아직도 좌석수가 부족해 입석 승객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요에 맞는 증편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역세권 개발 서둘러야=KTX호남선의 거점역이자 서남권 물류의 중심지가 될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은 부지 매입을 놓고 진통을

이용객 급증 역사 수용능력 포함 역세권 개발·연계 교통 구축 시급 이용객 급감 광주역 존폐도 과제

겪으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2013년 착공,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던 지하 3층, 지상 8층 규모의 광주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은 부지 매입을 놓고 코레일과 민간 사업 예정자, 사업자와 협약을 맺은 광주시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직 착공조차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호남고속철도의 광주 주요 관문인 송정역이 수용 능력 부족으로 이용객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이용객들의 불만 폭증으로 인해 철도시설공단은 최근 내년 6월까지 광주 송정역사의 주차장 150만 확대와 대합실 증축 확장 등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매월 급증하는 이용객들의 수용을 감당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여 '땀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과거 거점역이었던 광주역은 KTX가 경유하지 않게 되면서 이용객의 3분의 1 이상 줄어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 광주역의 존치 여부 결정 등도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효과 극대화 방안은=한국은행이 발표한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광주·전남 경제 발전전략'에 따르면 교통편의성 증대로 광주·전남권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약 2949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4155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관건은 효과의 극대화 방안이다.

역세권 개발, 거점 역의 복합 환승 체계 구축 뿐만 아니라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 등이 중·장기적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남도 음식 브랜드화, 농촌체험과 힐링 프로그램, 지역축제-KTX 결합상품 개발 등 농림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이 결합한 6차산업 활성화와 의료·관광 클러스터 구축 등도 KTX 효과를 배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호남고속철도 개통에 따라 과거 호남선의 거점역이었던 광주역에 KTX가 경유하지 않으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최근 역 폐쇄 후 공공기관 청사 또는 복합시설로 재개발. KTX일부 유치를 통한 역 존치 등 광주역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민관 합동 논의가 진행중이다. /나명주기자 mina@kwangju.co.kr

## 국감 현장

### “인공식물섬 설치 후 영산강 수질 되레 악화”

환노위 영산강유역환경청 국감서 주영순 의원 지적...상임위 곳곳 충돌

국회는 5일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갔지만 피감기관장들의 과거 발언과 성명 등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논란이 일었다.

환경노동위의 국감에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의 인공식물섬 설치사업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이 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인공식물섬 주변 수질분석 모니터링을 분석한 결과, 영산강 지류(나주 구간)에 인공식물섬을 설치한 이후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와 T-N(총질소), T-P(총인) 등이 오히려 증가해 수질개선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영순 의원은 “2년전 환경부의 직접 녹조제거사업의 실패를 영산강 지류에서 재차 다시 밟고 있는 것”이라며 “녹조제거의 근본적인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보여주기식의 전시행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과 동북아시아역사재단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호섭 동북아시아재단 이사장이 참여한 성명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새 정치연합 박해자 의원의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김 이사장의 과거 성명서 내용을 읽으며 명확한 입장 과 사과 없는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재위의 종합감사에서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하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트위터 글을 올려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안철수 KIC 시장의 거취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다. 새정치연합 박계석 의원은 “안 사장이 전 직원을 상대로 ‘나는 물러날 일 없고 KIC가 없어질 일 없다’고 이메일을 보냈다”며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의 자격에 문제가 있어 조치가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국감 인물

### 국고 낭비 무분별 해외자원개발 매서운 질책 전남 동부권 물부족 등 대책 마련 약속 받아내

#### 이정현 새누리 의원

광주·전남에 지역구를 둔 유일한 여당 의원인 이정현 의원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특유의 성실하고 치밀한 질의로 피감기관의 안이하고 부적절한 행정을 지적, 주목을 끌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이번 국감의 원칙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정부 및 공공기업의 실재에 대한 질책 및 대안 마련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역할 등을 내세웠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지난달 1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이면서도 “해외자원개발이 1984년 이후 35조원이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공공기업 지분을 확대해 공공기업 대형화로 별질 됐다. 감사원 지적을 새겨들어야 한다”며 “결국 투자사업의 부실화가 기업 부실로 이어지고 부채로 총당하면서 국민 부담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부는 물론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의 전



문학적인 비용을 들이고도 성과를 내지 못한 근시안적이고 부적절한 해외자원개발 부실 문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4일 열린 중소기업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골목상권을 죽이는 대기업 횡포를 하지 말라는 동료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노일식 롯데리아 대표이사도 무성의하게 답변하자 “무성의하게 답변하지 말고 진자 반성 좀 해라”, “가능하면이라는 답변이 뭐예요”라고 언성을 높여 야당의원들의 호응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남 동부권의 물부족 문제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과 경북에만 중기청 지사 없는 상황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직원 10명 중 7명은 주말 상경, 주중 출근 상황 등 지역의 고질적 문제점을 지적,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을 약속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초특가 일본여행

# 무안(광주) ↔ 기타큐슈 직항

## 2015년 10월 9일(금) ~ 12월 28일(월)

패턴 : 매주 목(2박3일) / 토(2박3일) 출발

스케줄 : 무안(05:00) → 기타큐슈(06:10), 기타큐슈(01:50) → 무안(02:50)

✕ 항공기 :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 비행기로

# 399,000원에 간다!~

(선착순 30명 한정)

목요일  
출발해요

기타큐슈/야마구치/미야지마 3일		459,000원 549,000원
1일차	(03:30) 무안국제공항 집결 ▶ (SFJ, 05:00) 무안국제공항 출발 ▶ (06:10) 기타큐슈국제공항 도착 ▶ 칸몬대교를 건너서 이와쿠니로 이동 ▶ 일본전통 돌다리 키타이로 관광 ▶ 이츠쿠시마 신사 앞 바다 위에 우뚝 솟은 미야지마 오오도리이 ▶ 미야지마의 상징이며 일본 국보인 이츠쿠시마 본전 ▶ 미야지마 오층목탑, 다카부타이 ▶ 호텔(기타큐슈 1급호텔)	
2일차	히노야마 전망대 ▶ 조선통신사가 머물렀던 역사적인 장소 아카마시궁 ▶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유명한 춘범루 ▶ 카로스트 지형으로 아름다운 히라오다이 트레킹(동굴포함) ▶ 무라사키가와 강 하루 서안의 언덕에 축성된 고쿠라성 ▶ 서양식 건물이 모여 있는 모지코 레토로 ▶ 일본 3대 야경으로 불리는 사라쿠이마 야경 ▶ 기타큐슈공항 비즈니스호텔(2인1실) 투숙 및 휴식	
3일차	(00:10) 기타큐슈 공항으로 이동 ▶ (01:50) 기타큐슈국제공항 출발 ▶ (02:50) 무안국제공항 도착 후 그리운 집으로	

일본 소호무역(보타리무역) 탐방단 모집

무안 - 기타큐슈 공항을 연결하는 직항 항공편 개설에 따른 소호무역 탐방단을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일정**  
무안출발 - 기타큐슈 공항 일본의 3대 아울렛 도수 프리미엄 아울렛 텐진, 캐널시티 등 일본 큐슈의 전통시장 등 탐방

■ 공통포함사항 국재산 항공료, 무안 공항세, 전영보험료, 현지 공항세, 유류할증료, 편선(다인실) 또는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어 가이드, 입장료, 1억원 여행보험, [특정] 선착순 40명 무안공항 환복 수송

■ 공통불포함사항 상급차차, 개인 경비, 가이드/기사 경비(30,000원)

##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 조이투어

JOY TOUR CO.,LTD  
http://www.joytour.kr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NAVER 조이투어 검색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 234-3222

Fax. (062) 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